



2026. 8. 10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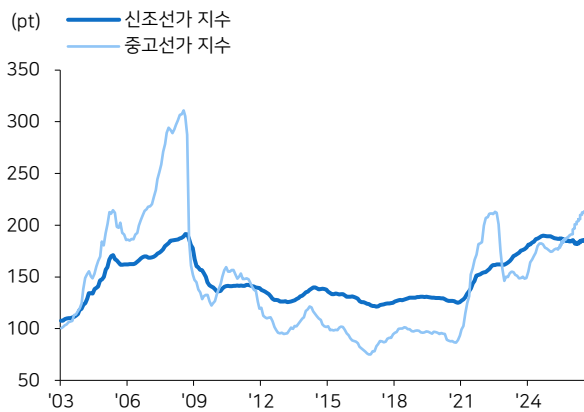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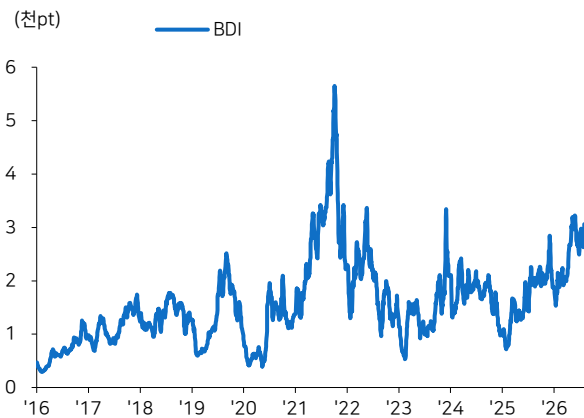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3.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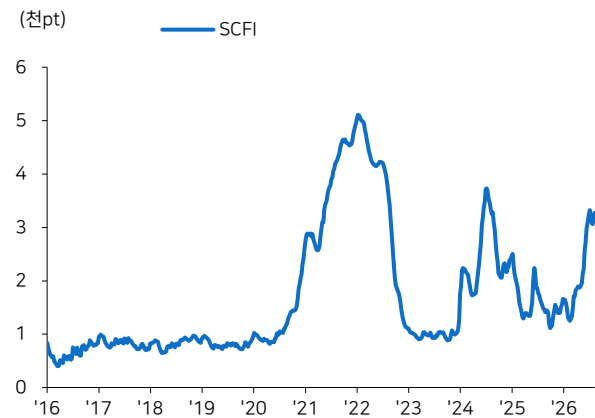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57.0p (-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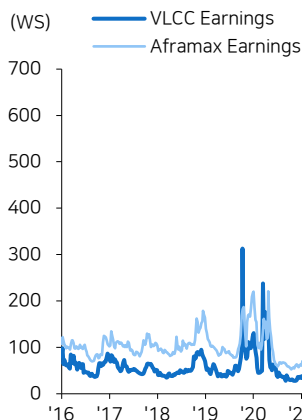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76.1 (+70.2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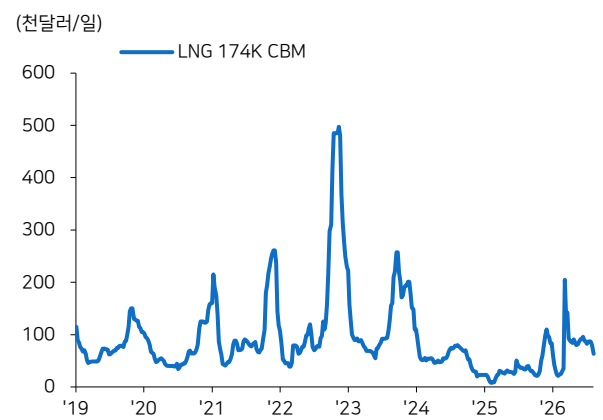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74.6WS (+19.7p WoW)



LNG Spot 운임

63.4천달러 (-16.4p WoW)



©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 美 팔란티어 결합 AI 무인정 '테네브리스' 수주전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aZtoC3>

HD현대중공업과 팔란티어가 공동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무인수상정 '테네브리스'가 2026년 말 완료 시한을 앞두고 성능 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전장 17m, 배수량 14톤급의 이 함정은 거친 해상에서도 최고 50노트의 초고속 항해를 목표로 하며, HD현대의 자율운항 기술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결합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예정이라고 전해짐. 이번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 협력 파트너십(MASGA)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조선·방산 기술이 글로벌 무인 함정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美 해운 계열사 통해 VLCC 선주사업 가동...비틀에 3척 용선 (더구루)

<https://zrr.kr/qeUj9V>

한화오션의 그룹 합작 해운 계열사인 한화쉬핑이 32만DW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인 'Elandra K2'를 정식 인도받으며 선주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해상 운송 영역으로 밸류체인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전해짐. 확보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3척 전량을 세계 최대 원유 트레이딩 기업인 Vitol에 장기 용선하여 안정적인 용선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알려짐. 자체 해운사를 통한 선박 발주 및 보유 구상이 첫 결실을 맺음에 따라 기존 선박 건조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선박 대여와 해운업까지 수익 창출원을 다각화할 전망이다 보고됨.

트럼프 장남 前약혼녀, 삼성 조선소 찾아... "한국 장인정신의 상징" (조선비즈)

<https://zrr.kr/q58fvA>

김벌리 길포일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됨. 길포일 대사는 한국, 미국, 그리스 3국 간의 전략적 조선 협력이 글로벌 해양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 부활 기조 속에서, 길포일 대사는 한화오션과 그리스 ONEX 그룹의 협력 서명식에 이어 삼성중공업 선박 진수식에도 참석하는 등 3국 간 긴밀한 조선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판테온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인도...2,500억원 프로젝트 결실 (더구루)

<https://zrr.kr/9qhjdD>

HD현대중공업이 그리스 선사 Pantheon Tankers가 발주한 158,000DWT급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인 첫 번째 초도선 'Sea Topaz' 호를 성공적으로 인도함에 따라 범용 상선 시장에서의 우수한 건조 역량을 입증했다고 전해짐. 당초 예정보다 납기를 대폭 앞당겨 조기 납품을 실현한 이번 인도 과정은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및 강화된 환경 규제 속에서 고품질 선박을 확보하려는 선주 측의 수요가 작용한 결과로 알려짐. 향후 남은 후속 자매선 'Sea Quartz' 호의 연말 인도 역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사 간 굳건한 협력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도됨.

조선업계, 다음달 세계 최대 가스전시회 총출동...미래 선박 기술력 뽐낸다 (헤럴드경제)

<https://zrr.kr/9biQnh>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다음 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스·에너지 산업 전시회 '가스텍 2026'에 대거 참가해 미래 선박 기술력을 선보이고 글로벌 사업 협력을 모색한다고 보도됨. HD현대, 한화,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해 탈탄소 기술과 차세대 선박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기업 임원들의 현장 소통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해짐. 이번 행사에서는 한화해운 제임스 사가르 대표와 삼성E&A 조원식 부사장이 전략 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친환경 해양 인프라 투자와 저탄소 프로젝트 금융 구조화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짐.

HJ 중공업, 국제신문 인수 유력 (서울경제)

<https://zrr.kr/4W59sv>

HJ중공업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부산 지역 양대 일간지 국제신문의 투자계약체결자로 선정되어 인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됨. 기존 스톡킹 호스였던 컨소시엄이 물러난 후 입찰 2순위였던 HJ중공업이 최종 협상에 나섰으며, 인수가격은 100억 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다음 달 관계인집회의 법원 인가를 거쳐 거래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부산 영도에 조선소를 둔 지역 연고 기업인 HJ중공업이 지역사회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